

2007년 12월 19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대통령후보가 12명으로 확정되었는데, 각 후보는 앞으로 5년 동안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말을 별로 없고, 상대방 흡집 내기,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약점 들추기 등 소위 네거티브 운동 방법을 쓰고 있다.

국민들은 어려운 가정살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후보의 입과 행동을 쳐다보고 있는데 후보들은 자기의 장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여 약점을 잡고 망신을 주어서 그 반사이익으로 자신의 표를 얻겠다는 그 야말로 속 좁은 작전(作戰)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선후보자들의 행태는 국민의 정치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현대 정치지도자의 유형은 어떠한가? 미국 국민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조건은 첫째는 공정성이고, 둘째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으로 단순화 시키고 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 몽고메리는 수많은 장교를 분류하였는데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구분하였다. 이를 다시 정리해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똑 · 부)은 참모령이고,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학교 교수

누가 '큰 바위 얼굴' 인가

(똑 · 게)은 두목형이며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멍 · 부)은 일만 지저르는 형이고,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멍 · 게)은 중도 탈락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를 이 틀에 짝을 끼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잘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첫째, 한국호(韓國號)라는 큰 배의 선장으로서 전 국민에게 창조적,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속이 보이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인기 영합을 피하는 꼼수의 정치 지도자는 안된다.

둘째, 대통령은 뚜렷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 정신',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의 '교도 민주주의'(Guide Democracy), 이집트 나셀 대통령의 '범아랍민주주의', 인도 네루수상의 '제3세계이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프랑스의 영광' 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도자는 국민에게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강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만 있고, 묵묵히 일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을 위한 기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거 중심이 아니라 현재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청사진을 세우고 시계절적 차원에서 차근차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차기 대통령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가지 다른 악기의 소리를 잘 조화시켜서 훌륭한 교향악을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경제 안정과 복지실현, 통일 구축을 성취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장자(莊子)의 소요유편에 나오는 대부(大鵬)와 같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왔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대선후보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같다. 다만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에 해당하는 합리적이고 겸손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해 본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 상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보살 같은 분이 나타나실 것으로 기대해 본다.



조계종 출판문화상 제정 '환영'

조계종이 출판문화상을 제정하고 불교도서전도 연다고 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불서출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출판문화상을 운영하고 불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발표된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40%에 달한다고 한다. 10명 중 4명이 한 해 동안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선통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의 일상화가 가속이 채워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책장 넘기는 기쁨을 잊게 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인터넷 뿐 아니라 오디오 북의 출시라든가 영상물에 대한 관심의 증폭 등이 독서문화를 뒷받침하여 밀어내는 현실도 염연한 현실이다. 불자가 책을 읽는 것, 법위를 축사하여 불자가 불서를 읽는 것은 수행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노력이다. 불교는 바른 교리적 이해와 수행의 방법을 알 때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종교다.

불자는 불서를 읽어야 한다. 가능하면 많이 읽고 많이 느끼고 많이 사유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대 조사들의 정신을 자기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양질의 불서가 보다 많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불교출판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불자들이 독서를 통한 수행 단계에 나서야 한다. 물론 출판사들도 좋은 필성을 양성하고 디자인과 편집의 감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계종이 제정한 출판문화상과 불교도서전이 이러한 과제를 풀어 가는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

'화합' 중요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시끄럽다. 주지 인사와 관련 총무원과 신도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쟁쟁히 맞서고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인사권자인 총무원장의 입장에서는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고 신도회는 신도회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부주지 내정'과 전임 주지의 '자리보장'이 '홍성'되어 스님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조계사 신도들은 신도로서 사찰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사찰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를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인사권은 승가의 일이나 신도의 입장에서 신생활 등에 전념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말하자면 신도의 '지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따지고 보면, 사찰 운영과 신도들의 신생활은 서로 떼어 놓고 얘기할 일이 아니다. 총법에도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가? 문제는 지금껏 정치적으로 접근할 때 인사 문제와 신도 지위가 충돌하여 불필요한 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승단과 신도가 함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불교 1번지에서 인사문제로 혼란을 겪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다. 묻고 싶다. 승승이 화합하지 않고 한국불교 1번지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종교자유' 칼럼

38. 공공장소 선교문구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공공장소의 특정종교 선전문구 정교분리 정면 위배

공공장소가 직접적인 전도활동은 아닐지라도 선교문구 게시 등 간접적인 선교행위에 이용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2000년 11월 미국 앨라배마주의 무어 대법원장이 법원 청사에 모세의 십계명 기념비를 설치한 데 대해, 법원에 출입하는 변호사 3명이 불쾌감을 준다는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소위 '십계명 사건'은 미국 헌법의 정교분리 정신이 얼마나 치열한 논쟁거리인지 확인시켜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교를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고,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었다. 연방지법, 연방고등법원 모두 만장일치로 철거 판결을 내렸고, 2003년 11월 연방대법원은 무어 대법원장의 상고에 대해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철거 판결을 확정지었다. 철거를 거부한 무어 대법원장은 결국 명령불복종으로 직위해제까지 되었다.

또 다른 미국의 예. 지난해 12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은 그동안 25년간 매년 이맘 때 청사를 장식해 온 크리스마스 트리 등 성탄절 장식품을 모두 철거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 랍비가 "12월 24일 유대교 명절인 봉헌절에 맞춰 유대교의 상징인 대형 촛불 메노라를 함께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



고속도로변 아산의 입간판. 종교를 드러내는 문구가 두드러진다.

을 경우 공항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공항 측은 "모든 종교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어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차라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없애겠다"고 해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공공장소의 종교 광고부터 문제다. 고속도로나 육외광고판에 상품광고와 함께 'JESUS LOVES YOU'(그리스도 단, 출라-O) 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인정건설) 등의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라는 공공장소를 자신의 종교선전에 이용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더니, 그 무지와

편협함이 놀랍다. 고속도로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항의 제보에 따라, 올해 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육외광고물의 허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공문을 접수한 시초구청과 청원군 두 지자체는 "위헌소지가 있다면 추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줌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광고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선교문구가 버젓이 보이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지하철 공사 당국자들의 무관심과 무지의 소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공간을 돈으로 사서 사용하는 게 무엇이 문제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공장소나 공공자산을 사회공익을 위해서가 아닌 특정종교 선전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이 세상은 돈 많은 종교의 광고물로 뒤덮일 것이 아니겠는가.

공공기관 건물 내에 특정종교의 문구를 아무 생각 없이 게시하는 것도 문제다. 2003년 9월 대전 법원종합청사 엘리베이터 내 게시물에 기독교 문구가 있는 것을 두고, 일부 판사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해 특정종교를 알리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다. 우리 주위에 너무 흔한 일인면서도 그동안 아무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신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반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편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구성원들 간의 동의하에, 그것도 여러 종교의 가르침이나 고사성어 등 좋은 명언들을 두루 뽑아 공평하게 게시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학교의 강의실 정면에 십자가나 불상을 걸어 타종교인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강대를 포함 대부분의 가톨릭 학교들이 십자가를 걸고 있다. 가르치는 교사는 직접 보지는 않지만 뉘시 깔고 있다. 그러나 강의 내내 보아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슨 심리적 고문이란 말인가. 동국대의 경우 석급암 부처님 사신을 걸어 놓았으니 문화재 사신일 뿐 직접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타종교인 학생들에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지면에 고무도장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찍어서 돌리는 불상식한 개인교인들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화해는 그 가치만 소유자가 임시 갖게 되는 것이지 물건으로서의 화해는 국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화해체소는 일종의 범죄인 셈이다. 그러나 맹신자들의 눈에 그런 정도의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될 리 없다.

우리 사회는 아직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공공장소에서의 종교남용을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Advertisement for '영가천도의 중요성' (Importance of Yungachon-do) by Heonbeom Park. It includes a title, a list of 12 poin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Advertisement for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Eliminate pain coolly!) by Gurokoye. It features images of pain relief products and text describing their benefits for various types of pain.